14과 성경책을 발견한 요시야 - 황용선 목사님

역대하 3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4:1~2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팔세라 예루살렘에서 삼십 일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죠? 성경책을 발견한 요시야 삶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겠는데, 먼저 시대적 배경, 나와 있죠? 이것은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 역대하 지금 읽었던 이 말씀과 열왕기하를 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시간적 배열로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열왕기하는 지정 즉 장소에 의해서 성전, 성읍,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구성 돼 있다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건 좀 살펴보시고 단, 중요한 것은 지금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죄가 언급 돼 있고 정치적인 역사가 기록 돼 있고 전쟁 강조를 하고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내용들이 쫙 나열 돼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왜 망했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왜 망했냐?
근데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그리고 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종교적 역사 성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 말씀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이 기록 돼 있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다시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이스라엘 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가? 이 포인트가 그 쪽에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관점이 다르게 기록돼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교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 요시야의 삶을 통한 교훈인데,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고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므낫세는 잘 아는 것처럼 최고 악했던 왕입니다. 그런 가정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물론 므낫세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땠냐? 요시야는 남유다 왕 중에서 정말 선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위대한 왕 중에 한명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교훈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 '아! 신앙에 있어서 환경과 상황은 결코 핑계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가정적인 형편 배경을 안고 있었지만 가장 위대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핑계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 가는 걸 못 가게 하는데

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굵은 체로 2번 하나님의 평가 위쪽에 보면 요시야는 환경과 배경에 영향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 순종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요시야와 같은 어떤 마음 요시야와 같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읽었던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요시야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죠?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요시야의 삶 자체가 한 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관점에서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 왜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거와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그릇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계시는데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 자매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셨죠? 제가 그런 모습 보고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칭찬을 받아요. 왜 그럴까? 좀 웃기잖아요? 뭔가가 잘 못 된 거잖아요? 제가 아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힘 있게 살아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칭찬 받는 모습이 될 것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하고 친하 보면 그런 사람한테 마음을 두고 친하게는 지낼 수는 있지만 아셨죠? 우리가 보통 실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갈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게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게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다 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살전2:4[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기 때문에 비록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했던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2절 3절 4절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일 밑에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 과대 포장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있음을 늘 인식하고 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해서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올바로 인식할 때 신앙생활도 올바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모토로 내세웠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인식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하다 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자 그리고 역대하 3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하34:3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지 팔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십 이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대하34:7[단들을 훼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6절에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시브온 납달리까지 북 이스라엘이죠? 그죠? 즉 요시야가 남유다 왕이었을 때는 북이스라엘까지. 요시야가 그 지역까지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앗수르가 점점점 쇠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므낫세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16살 때, 8년에, 위에 있은 지 8년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을 때 그 때 하나님을 갑자기 찾은 건 아니겠죠? 원래부터 찾고 있었는데 시발점이 되었던 게 그 때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온통 우상들을 다 제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을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여기 지금 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내 손에 집기 위해서는 일단 이 우상을 먼저 놓고. 아셨죠? 먼저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여기 보면 유인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굵은 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의 영역에서 우상과 같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거나 신앙이 성장되는 것은 아니죠? 울 수는 있어요. 말씀 듣고. 아셨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먼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수24:14[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선행 조건이 있잖아요. 버리고, 버리고.
사무엘상 7장 3절에도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버리는 게 필요한겁니다. 욥기 11장 13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욥11:13~14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네 장막 첫 번째는 텐트거든요 집이거든요 삶의 영역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손을 들기 위해서 먼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죄를 철저하게 버리라 불의를 버리라 라는 거죠 이게 선행입니다.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찬송가 10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 예수님 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고백을 자연적으로 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응 없네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3번째 성전을 수리함 그랬는데,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곳이 성전인 겁니다. 수 십 년 동안에 성전이 퇴폐해지고 오히려 그 성전에 다른 우상들이 산당들이 있어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6년 동안에 우상을 다 파하고. 6년 걸렸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단숨에 우상들을 타파한 게 아니라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나서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요시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어떤 의지, 결단, 헌신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유인물 이런 말씀이 있죠? 역대하 34장 8절에 대하34:8[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십 팔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마쳤죠? 6년 걸렸

습니다. 18년이니까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뭐라고요? [수리하려 하여] 그랬죠? 그래서 여기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요시야의 의지, 결단, 헌신이 담겨져 있다. 왜 헌신입니까? 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될까요? 주님을 내가 전부였잖아요. 주님은 내가 전부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전부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롬14:8[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빌립보서 1장 20절 밑줄 친 곳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주님만 높여지길 원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사도 바울의 삶이, 사실은 내 간증이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잖습니까?

그리고 4번에 반괄호 1번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 책이 발견 되었다. 라는 겁니다. 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수리한 과정가운데 이 율법 책을 발견했는데 성경 역대하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랬죠? 왜 여호와의 율법 책이 요시야왕 시대에 발견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해서 성전을 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시대에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공감이 되고 감동을 받고 더 주님을 알아 가냐?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자신을 희생할 때 헌신할 때 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멋대로 6일 동안 살다가 주일만 sunday만 되면 교회 오는 사람에게 말씀이 깨달아 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유인물 보면 말씀을 깨닫기 위한 자세가 있죠? 숨은 죄가 없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반괄호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야 한다.

5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을 뭐라고요? 가져야 한다. 이런 배울 수 있는 난 언제든 지 배우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지금 제가

5가지 정도 열거했지만 이런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요시야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던 거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지친 상황에서 집에 가잖아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성경을 안 읽을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한테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읽는 것하고 물론 거기서 깨달아 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연구할 때 자세가 깨닫기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보면 피곤할 때 깨달아 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것에 더 감동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담겨지지 못한 것들을 더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을 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괄호 2번에 말씀을 듣고 난 후 요시야의 반응인데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죠?
역대하 3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죠. 대하34:18~19[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저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항상 자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태도.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은 옷을 찢었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찢었다.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성경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대하34:27[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랬죠? 정말 죄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반응 없이 냉담하게 무감각표현으로 듣는 것 이게 실제는 이게 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죄 짓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겸허한 자세도 없이 아무 반응 없이 맞다 이렇게 듣잖아요? 그리고 조는 경우 많잖아요? 그 때 사실 뜨끔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무감각 해지고 있나? 교만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죄가 확장이 딱 되잖아요. 확장이 딱 되거든요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자그마한 것 하나가 오는데 그 시작이 말씀에 대한 무감각 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황이 없는 거죠? 겸손하게.**(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데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분20초 정도에 있어요.)** 배우려고 노력 하는 게. 그래서 밑에 보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시139:23~24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보시고 그랬잖아요? 항상 이런 삶의 자세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들었을 때 태도는 교사인 우리가 항상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시야의 언약이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혼자만 들은 게 아니죠?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들리게 합니다. 역대하 34장 30절 대하34:30[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무론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대하34:33[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교사에요 바로 이거. 그러잖아요? 본인이 이미 먼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 선포 된 말씀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잖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시야가 남유다는 무조건 망한다라고 했잖아요.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멈출 수가 없다 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쩝니까?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정말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우상을 다 제하는 상황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길 가장 원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말씀을 전파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주어진 환경에 결코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우리는 망했어 끝이야 이게 아니었잖아요. 자포자기 한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늦췄잖아요?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페이지 보면 굵은체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요시야는 적어도 자기 대에서 만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고 싶었다 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작정한 나라야 내가 뭘

해도 헛수고 일텐데 라고 체념해 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요시야는 그래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었고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 절망하지 않고 최대한 소망의 불을 켜 들었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이걸통해서 우리도 부정적인 상황만 보고 체념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정말 주님을 붙드는 몸부림을 쳐 보자는 거죠. 암울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자 이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통해서 또 다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거 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헌신하겠다는 다념(?)인 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탈바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사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분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늘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